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기 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5주 】
(2부 찬양: 540. 주의 음성을)

인도 1부 : 이재훈 목사
2부 : 이범석 목사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626.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x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김기석 목사
 ▲ 경배의 찬송 34.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새 희망의 빛을 선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암울한 현실에 갇혀 한숨짓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막혔던 우리의 시야를 띄워 주십시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품으시고 이끄시며 온전히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힘차게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전쟁 피해자들의 울부짖음은 여전한데, 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뎠어지고 있습니다. 사악한 폭력을 저지르는 이들을 주님께서 벌하여 주십시오.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들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십시오. 주님, 지구촌을 참 평화의 땅으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시118:5,14 인도자
 ▲ 교 독 문 22. 시편 37편 다 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2부 대표기도 장원호 장로
 2부 응 답 송 반주자
 2부 찬 양 383.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다 함께
 ▲ 성경봉독 왕하 19:29~31 1부:인도자/2부:신문희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 독 자
 다 합 께

찬 양	I. 담대하라	마중물 찬양대
	II. 주님은 나의 빛	청과 찬양대
말 씬	주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김기석 목사
거듭 기도		다 함께
2부 찬 양	401. 주의 곁에 있을 때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생명들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하신 오른팔을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어둠에 붙들리지 말고, 하늘의 빛을 앙망하며, 내일을 향한 희망의 발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으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낙담하고 두려워하며 뒷걸음질 쳤던 불신앙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날을 고대하며, 생명과 평화의 씨앗을 이 땅에 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다음주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이재훈
2부	김기석	박범희	임당재	이범석

 청과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ungpachurch/>

 청과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예배실황' 클릭

 청과교회 카카오톡 채널 : 친구검색창에 '청과교회' 검색 후 채널 추가

※ 헌금계좌 : 새마을금고 9002-1751-3375-3 (예금주 : 청과교회)

